

1. '가' 예문의 중요사항을 단락별로 찾아 적어보자.

단락 번호	중심내용
1	토크 음악은 쉽게 구성되어 있어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공동체적 음악이라는 말은 개인과 주변에 대한 영향력을 포함한다.
3	토크는 음악을 생산, 수용하는 방식이자 세상을 보는 태도다.
4	공동체 문화가 약해지고 있지만 토크의 관심을 갖는 사람도 공동체가 존재한다.
5	토크 리바이벌 운동에서 아쉬운 것은 라거나 토크로 복고하려 한다는 것이다.
6	토크가 가진 청년문화의 특성을 발전한다면 토크는 자기정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 1번에서 작성한 단락별 중심내용을 내용별로 분류한 후 요약문을 작성해보자.(250자 내외)

토크	음악	은	쉽	게	구	성	되	어	있	어	공	동	체	적	인	성
격	을	가	지	고	있	다	공	동	체	적	음	악	이	라	는	개
인	과	주	변	에	대	한	영	향	력	을	포	함	한	다	즉	토크
음	악	을	생	산	수	용	하	는	방	식	이	자	세	상	을	보
는	태	도	다	공	동	체	문	화	가	약	해	지	고	있	지	만
토크	의	관	심	을	가	지	는	작	은	공	동	체	들	이	곳	곳
에	존	재	하	는	다	다	만	토크	리	바이	벌	운	동	에	서	아
쉬	운	것	은	라	거	의	토크	로	복	고	하	려	한	라	는	것
이	다	다	토크	가	가	진	청	년	문	화	의	특	성	을	발	산
할	때	에	토크	는	자	기	정	신	을	이	룰	수	있	을	것	이
다																250

3. '나' 예문을 500자 이내로 요약하시오.

지	속	적	인	피	해	를	겪	은	사	라	은	이	죽	피	해	를	더
우	경	계	하	게	된	다	그	런	게	만	은	사	라	들	이	이	를
피	해	의	식	이	라	고	한	다	비	논	리	적	은	자	신	은	피
자	라	고	한	다	면	만	는	만	이	지	만	실	제	피	해	정	현
가	진	피	해	자	가	피	해	를	경	계	하	는	것	을	비	난	할
수	는	없	다	피	해	의	역	사	를	고	려	하	지	않	고	피	해
의	식	이	라	는	이	들	을	볼	며	서	는	안	되	다	어	때	이
들	은	피	해	자	가	처	한	구	근	라	역	사	를	는	때	에	만
제	를	개	인	에	게	대	응	기	려	피	해	자	를	비	난	하	기
로	한	다	하	지	만	피	해	자	의	경	계	심	은	자	신	을	보
는	하	기	위	한	만	법	이	다	피	해	자	가	경	계	심	을	강
조	게	되	기	까	지	우	리	는	특	히	를	했	는	가	를	생	각
해	야	한	다	독	력	과	자	변	은	모	든	인	간	관	제	를	복
신	을	조	장	하	고	명	숙	하	한	다	외	부	에	서	독	력	이
가	해	신	다	면	그	것	은	정	단	을	자	전	라	하	는	데	복
적	을	수	는	것	이	다	따	라	서	피	해	를	보	상	하	려	면
다	시	만	을	수	있	는	만	들	을	보	상	해	야	한	다	신	리
를	알	고	대	행	하	는	것	은	인	간	의	힘	이	다	대	행	리
주	면	들	은	서	로	를	말	은	며	독	력	에	대	행	하	고	있
다	다	우	리	는	이	들	을	만	드	시	기	억	해	야	한	다	



가.

포크는 말 그대로 공동체에 의한 공동체의 음악이다. 전통적 농촌 공동체의 토양에서 출발한 포크는 구술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상업적 팝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전통적 포크는 1930년대 좌파 이론가들에 의해 계몽의 음악, 도시의 음악으로 수용되었다. 이들이 포크를 복권한 이유는 포크에 담긴 집단적 효과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포크의 공통적 성격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보컬의 관습, 단순한 악기 편성, 반복과 코러스와 상투적 멜로디의 사용으로 완성되었다. 물론 연주자와 청자는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포크 공동체는 음악적 연주 자체에 의해 창조된 공동체로 재정립되고, 포크 이데올로기는 포크 따라부르기 효과로 가시화되었다.

공동체의 음악이라는 말 안에는 '동질적 의식을 지닌 또래 집단의 음악'이라는 의미 외에 '개인과 주변을 진지하게 바라보려는 통찰력'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개인의 진실, 집단의 진실이라는 포크의 진정성 이데올로기로 종종 전환된다. 선명한 메시지가 문학적 수사로 바뀌고, 어쿠스틱 악기의 청아하고 투명한 사운드가 일렉트릭 악기로 바뀌어도 진실한 내면의 음악이라는 포크의 관습은 바뀌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포크는 '통기타'라는 악기의 관습 또는 회고조 낭만이라는 정서로 설명되기 전에 음악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방식의 문제이며 자아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70년대 포크에 담긴 낭만주의와 80년대 민중가요의 전투적 서정성은 또래 집단들 사이에 통용되는 은어였고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었던 셈이다.

물론 포크의 기반인 공동체의 문화가 개인주의의 여파로 급속하게 해체되고 있다고 하지만 취향과 신념을 같이하는 이들의 소규모 공동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포크의 관습을 계승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도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지만 존재하고 있다. 세상에 대한 현기증이나 일상의 권태를 끔찍하게 노래하든, 그럼에도 버릴 수 없는 희망과 인간애를 노래하든 이들은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음악 어법으로 세상을 채색해간다. 텔리스페이스와 미션이가 팝의 오밀조밀한 사운드를 구사하고, 윤도현 밴드가 고출력의 일렉트릭 사운드를 들려주고 강산애와 한영애가 테크노의 옷을 입혔지만 저변에 흐르는 정서와 태도는 충분히 포크적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포크 리바이벌 운동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포크의 틀을 넘어서면서 포크를 재정의하려는 일련의 움직임과 접촉하려는 지점이 부재하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성인층을 위한 대중음악을 발굴하고 이들을 공연장으로 모이게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의의 있는 일이다. 소리 소문 없이 지내던 과거의 맹장들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소식도 여전히 반갑다. 그러나 현재진행형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노래하는 한 포크는 여전히 중년의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노쇠한 음악, 여기에 편승하는 애늬은이의 음악으로만 기억될 것이다.

청년문화는 자기 갱신을 향한 열망을 그 특징으로 한다. 청년문화의 일부로 성장했던 포크의 어딘가에는 이러한 에너지가 적재되어 있으리라 믿는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려는 힘과 조우할 때 비로소 포크는 구태의연한 세대론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 박애경, 『가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책세상, 2000), pp. 81-83.)

나.

사람이 한번 다치면, 다음번에는 다치지 않기 위해서 몸조심하게 됩니다. 한번 속으면, 또 속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살피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차별을 경험했거나 피해를 겪은 사람은 훗날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보다 높게 예측하게 됩니다. 인종, 민족, 성별, 나이, 외모, 장애, 혹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겪은 사람이 이후 피해에 더 몰두하게 되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 \* '피해경험'과 '피해의식'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피해의식'이라는 오명을 덮어씁니다. 만약 특정 피해를 입은 경험과 무관하게 피해를 입는 데 대한 경계심이 과도하게 높고 타인을 지나치게 의심하려 한다면, 이를 일컬어 '편집증적'이라고 말합니다.

'편집증'이라고 했을 때에는 전혀 그럴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을 피해자로, 상대를 가해자로 만들어 버리는 왜곡된 관점과 비논리적인 사고 양상이 기저에 깔려있음을 내포합니다. 즉, 외부 세계와 무관하게 자기 안에 있는 적개심이나 수치심에 기반을 두고 타인이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곡해한다면 소위 '피해의식'이라는 말이 틀리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만약 피해경험이 실제로 있으면, 우리는 여기에 대고 '편집증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의식'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 것이지요.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경계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가 보이는 의심은 그 내면의 적개심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외부 세계가 그에게 부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소위 '피해의식'이란 피해의 결과가 되겠지요.

피해의 역사를 고려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피해의식'이라고 이름 붙이는 실수는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피해의 역사와 그 결과를 연결 짓지 못하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피해의식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문제를 제



기해야 하며, 피해의 역사가 어떻게 현재를 야기했는가를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해의식'이라는 말을 써서 피해자가 처한 구조와 역사와 더불어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를 교묘히 은폐합니다. 경계해야 당연한 환경에 처했던 사람에게 '피해의식' 운운한다면 문제를 개인에게 떠넘기며 '피해자 비난'을 범하게 되는 셈입니다.

### \* 쉽게 범하게 되는 '피해자 비난'

만약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힘이 우리를 파괴하였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라도 지키고자 경계를 늦추지 않으려 애쓰게 됩니다. 일종의 생존 전략이지요.

사람이 조장한 폭력으로 삶이 뒤바뀌어 버렸다면 특히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마음을 터놓고 믿음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위협당하기도 했지만, 우선 상대방을 의심해보아야 하고 작은 단서에도 예민하게 대응하는 태도는 두 번째의 폭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겠지요. 경계심이란 생존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별과 폭력에 맞선다 하면, 불신과 경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단절되기 전에, 그가 뻔은 손을 누구 하나 잡아주었던가를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그가 아무도 믿지 못하고 경계하게 되기까지 우리는 그의 말을 믿어주었던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그에게 다가가려면, 더 노력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또한 폭력과 차별이 단지 일시적인 여파를 남기고 끝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차별과 폭력은 늘 차별과 폭력을 예상하게 만드는 굴레에 인간을 붙잡아 두고, 단지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로 경계심과 불신을 조장하면서 일반화되고, 뿌리 깊은 차별과 폭력을 영속화합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침해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두 눈을 부릅뜨고 주변을 살피지 않을 수 없고, 결국에는 마음을 닫고 아무도 믿지 않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자체에 대한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아 결국 사람들로부터 단절시킴으로써 폭력은 인간 안에 흔적을 남깁니다.

### \* 폭력의 목적과 폭력의 극복

만약 우리 외부에서 누군가가 폭력을 가한다면, 폭력의 주된 목적이 우리를 뿔뿔이 흩어놓고 서로를 경계하는 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폭력이 어떤 집단을 흐트러뜨렸다면, 그것은 폭력이 목표한 바였음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폭력의 피해를 보상하려 한다면, 다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보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폭력의 역사를 쉽게 잊는 대중은, 다시 믿는 마음을 결코 보상해줄 수 없습니다.

만약 폭력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대항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힘이겠지요. 이제 대중에게 잊혔을지 모를 매항리 주민 몇 분을 얼마 전에 뵈었습니다. 지금은 마을의 빼앗긴 역사를 재건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이 분들은 "나는 이런 모임이 있는 자리는 어디든 따라 나서야 한다. 내가 있어야 마을 사람들이 힘을 낸다"라고 말씀하시고, 서로에게 서로가 없었으면 오늘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폭력은 여전히 몸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과 지원은 더없이 강해 보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폭력의 끈질김에 맞서고 있는 이 분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